

# 상업용 주방설비 1위 한일오닉스 “음식물 처리기로 ESG 도울 것”

## 강소기업 탐구

진공 파이프로 음식물 모아 분쇄  
발효시켜 유기농 퇴비로 활용  
7~8년이면 설치비 뽑아

호텔·병원 등 주방기구 강자  
베트남·인도·멕시코 시장 개척



황윤대 한일오닉스 대표가 15일 인천 본사 사무실에서 제주 그랜드하얏트호텔에 설치된 친환경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원 기자

“매일 발생하는 4t의 음식물 쓰레기를 200kg의 친환경 퇴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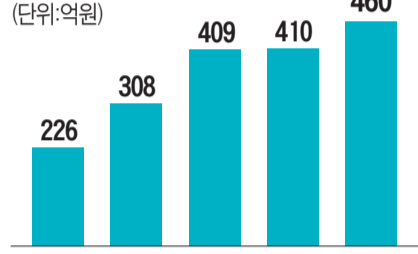
상업용 주방기구 전문기업 한일오닉스의 황윤대 대표는 제주 그랜드하얏트호텔에 설치된 친환경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황 대표는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국내에서만 500만t이 넘는다”며 “친환경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호텔 등 대형 상업시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 후 10여 년 만에 업계 평정  
한일오닉스는 상업용 주방기구 설계·사공 국내 1위 기업이다. 시장 점유율은 25%에 이른다. 특급호텔과 리조트, 병원 등에 업종과 규모, 주방 직원들의 동선을 고려해 싱크대, 가스레인지, 오븐, 환풍기 등을 제조해 설치한다.

국내 상업용 주방기구 시장은 2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9% 성장하고 있다. 한일오닉스는 연매출 400억원대를 달성 중이다. 서울 역삼동 조선패力士호텔, 명동 포인츠바이쉴라튼호텔, 용산 드래곤 시티호텔 등의 주방기구를 한일오닉스가 설치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해외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의 직원식당도 시공했다. 2014년엔 500만달러 수출탑을 받기도 했다.

황 대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친척이 운영하는 상업용 주방기구 업체에서 처음

### 한일오닉스 매출 (단위:억원)



일을 시작했다. 컴퓨터를 활용해 설계를 담당하던 그는 이후 구매·영업 업무까지 배운 뒤 2004년 회사를 설립했다. 황 대표는 “사업 초기엔 거래처 담당자 집 앞에서 14시간 동안 밤을 꼬박 새워 기다릴 정도로 열정을 쏟았다”고 말했다.

◆호텔·리조트 등 음식물 처리 시스템  
주방기구 시장 1위에 오른 한일오닉스는 최근 신사업으로 친환경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상업용 주방기구 시장에서 국내 첫 시도다. 작년 11월 문을 연 제주 그랜드하얏트호텔이 대표적인 시공 사례다. 이곳엔 직경 125mm의 진공 파이프가 38층 스카이라

운지 등 호텔 곳곳의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부터 지하 2층 저장고까지 이어지도록 설치돼 있다. 파이프 길이는 총 1.2km에 달한다.

저장고에 모인 음식물 쓰레기는 탈수·분쇄 과정을 거친다. 생선뼈부터 조개껍데기까지 부술 수 있다. 24시간 미생물 발효 후 친환경 유기농 퇴비로 바뀐다. 분리된 오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0.4ppm 이하로 정화돼 배출된다. 산천어가 살 수 있는 1급수 수준이다. 황 대표는 “과거 호텔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옐리 배터리로 옮겨 냉장실에 보관했다가 돈을 주고 트럭을 불러 처리했다”며 “상업용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오닉스는 이 밖에도 지난해부터 주방 설계 견적비교 온라인 플랫폼 ‘왓츠 키친’을 운영하고 있다. 업종과 주방 면적, 구조, 가용 예산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견적을 뽑아 가격비교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정보 비대칭과 가격 편차가 심한 상업용 주방 설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다. 황 대표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5년 뒤 매출 1000억원 고지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 LED 불빛 나오는 해울 지팡이... “밤길 걱정없죠”



## 110cm 앞까지 환하게 밝혀 어르신 교통사고·낙상 예방

이저하된 노인 및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한다. 전국 복지용구 전문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해울의 스마트 LED 지팡이는 복지용구지팡이카테고리 가운데 시장 점유율 40%로 올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복지용구는 심심 기능

선명한 시야를 확보해준다.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의 장애물을 인지하도록 해 안전사고 예방을 돕는다는 설명이다. 손잡이 아래 V자형 LED는 어두운 곳에서 운전자에게 사용자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카본 소재를 적용해 지팡이 무게가 350g으로 가볍고 튼튼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7단계 높이 조절 단자가 있어 사용자 기 또는 상황에 맞춰 높낮이를 최대 17cm 조절할 수 있다. 스마트폰처럼 충전하는 방식으로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도 없다. 2시간에 걸쳐 완충하면 최대 8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기 대표는 “스마트 LED 지팡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고령친화우수제품(2020년 7월~2022년 6월)으로 지정되며 성능을 인정받았다”며 “더 나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노인을 비롯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독립 보행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 유진한일합섬, 자연분해 되는 부직포 개발

유진그룹의 섬유 제조 계열사인 유진한일합섬이 국내 최초로 자연 분해되는 스펀본드 부직포를 개발해 양산하면서 친환경 부직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유진한일합섬은 국내 최초로 친환경 그린본(사진)의 양산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생산 판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통 석유화학물질로 만든 부직포는 분해에만 500년이 걸리지만 옥수수 등 식물 추출 전분을 사용한 이 제품은 땅에 묻으면 6개월 안에 자연 분해된다. 소생분해성(PLA) 스펀본드 부직포인 ‘그린본(사진)’의 양산 체제를 갖추고 본격

적인 생산 판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통 석유화학물질로 만든 부직포는 분해에만 500년이 걸리지만 옥수수 등 식물 추출 전분을 사용한 이 제품은 땅에 묻으면 6개월 안에 자연 분해된다. 소생분해성(PLA) 스펀본드 부직포인 ‘그린본(사진)’의 양산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생산 판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레이첨단소재 등 국내 부직포업계에서 PLA 스펀본드 부직포를 상용화한 곳은 이 회사가 유일하다.

그동안 60도 이상 고온에서 수축·변형이 발생한다는 점이 PLA 소재의 한계로 꼽혔다. 하지만 유진한일합섬은 10년간 연구개발을 거쳐 이 소재의 내열성을 대폭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난연성 향균성 등을 보강해 시장성을 높였다. 안대규 기자

# “中企 공장 주차장 남는 공간 활용 늘려야”

공장 면적에 비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에 중소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동화 설비 및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공장 종업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획일적인 주차장 규제에 인한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현장에서 산업 환경 변화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규제란 지적이 나온다. 제조공장의 자동화 및 스마트공장 확산 등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예전처럼 넓은 주차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제한 시설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주차장 규제로 체감하는 고통이 더 크다. 경기 김포의 한 선반 제조업체 관계자는 “신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주차장 위에 불법 가건물을 짓는 사례도 있다”며 “안전·화재에 취약하기 때문

## 박주봉 중기 읍부즈만 “23개 지자체서 규제 완화”

에 주차장 활용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시설 면적 1만㎡ 이상인 공장에 대해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장은 시설 면적 350㎡당 1대의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부설주차장 의무 규정을 어긴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읍부즈만은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체감형 규제 개선’ 일환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29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입주기업 유형, 근로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라”고 건의했다. 그 결과 23개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황제인 중기 읍부즈만 전문위원은 “시멘트, 레미콘 공장 등 시설 면적 대비 종업원이 적은 업종도 필요하지 않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지자체가 업체 여건에 따라 규제를 일부 완화해 운영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중기 읍부즈만 조사 결과 87개 지자체가 완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 읍부즈만은 이들 지자체에 “별도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라”고 건의했다. 14개 지자체가 수용의사를 밝혔다.

박주봉 중기 읍부즈만(차관급·사진)은 “주차장 규제 해소와 관련한 지자체 답변을 토대로 추후 이행 점검을 통해 규제 완화가 실제로 이뤄지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 읍부즈만은 중소기업법 22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독립정부가이다. 중기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개선하는 게 주요 업무다. 민경진 기자

#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인정해야” 대법 “등록 무효 아니다” 판결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5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2부는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코웨이는 2017년 청호나이스의 특허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특허법원은 코웨이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특허법원은 올 6월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해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 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이

달 11일 대법원에서는 심리복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코웨이는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특허 등록 유효성에 한정한 것으로 청호나이스 특허 침해 여부와 무관한 판결”이라며 “2심이 진행 중인 별도의 특허침해 소송을 통해 당사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KB 금융그룹 | 국민은행 | 금플카드 | 세상을 바꾸는 금융

카드와페이의 미친케미

더 없이 편리한 Pay와 원 없이 주는 카드의 만남  
KB Pay 챌린지카드

◆ 연세이슬 - 회원별 이용금액 상이시 3% 최고 연 20% \* 단 연별별 상이시 정상이지 않은 경우 이면과 같이 적용함. 일일 결제 면액시: 개별결제시점 최소 12개월 유지할부 수수료 적용 - 무이자할부 7월 면액시: 거래일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기간의 유지할부 수수료 적용 \* 상환금액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다할 경우 개인신용평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가가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금을 연환할 경우 모든 원금을 변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 국민카드